

창사 56주년 광주일보 테마

포지티브 사회로 가자

광주·전남이 잘사는 지역사회, 번영된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는 터울, 불신, 체념의 문화를 벗어나 자율, 신뢰, 자신감의 문화가 가득찬 '포지티브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16·17면〉

광주·전남은 국민의 정부~참여 정부의 10년간 발전을 위한 초석을 착실히 다져왔지만 70년대의 소외와 80년대 군사독재에 의한 피해가 남달리 컸던 탓에 아직도 지역민의 의식 저변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전라도 마이너스'의식이 남아있다.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 확정,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추진, 본궤도에 오른 관광산업과 자동차·전자·조선산업과 친환경 웰빙 농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이제 지역사회의 곳곳에 남아있는 '부정(否定)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포지티브 사회는 활기차고 세련된 사회다.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이를 위해 광주가 '정치'의 도시'를 넘어 '문화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파리는 근대정치의 최대 중요도시지만 오늘날 파리는 정치도시가 아닌 세계인의 문화도시로 사랑받고 있다.

토도 고쳐져야 할 '네가티브'문화라고 지적했으며 문인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인 친환경 개발의 효과를 무시한채 무조건 반대만을 일삼는 '환경시위'도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제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기존의 틀을 깨고 한 발짝 더 발

▲포지티브(positive) 사회 =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회를 말한다. 침묵보다는 도전, 규제보다는 자율, 강요보다는 대화,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법보다는 도덕과 신뢰를 통해 국가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사회다.

투서·역지·부정의 그림자 걷어내고 신뢰·긍정적·생산적 사회 만들어야

광주지검 안형준 검사는 일본의 4천배가 넘는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건수를 예로 들며 허위고소, 무고(誣告)가 사라지는 사회를 주문했다. 부산출신인 조선대 이병철 교수는 실정법보다 '폐법'이 우선되는 풍토, 사소한 교통질서가 무시되는 풍토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김영용 교수(경제학)는 기업인들을 무조건 백안시 하는 풍

전하려면 ▲정경자의 발목을 잡기 보단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주며 ▲행정적 규제나 지적보다는 자율을 강화하고 ▲법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하며 ▲공무원조차 기업가를 도와주고 ▲젊은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의식 구조가 신뢰와 정직, 예의, 품격 그리고 절차를

중요시하는 '포지티브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정록 전남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근본적으로 지역민이며, 지역의 발전은 지역민이 자신과 지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지역민들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만 부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긍정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막



17일 함평군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막식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석형 함평군수가 어린이들과 함께 나비를 날리고 있다. 나비·곤충엑스포는 1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45일간 개최된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정치권, 혁신도시 사수하라”

공기업 민영화엔 축소·변질 불가피 야당 역량 결집 임시국회서 막아야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축소 또는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미래가 달린 혁신도시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선 지역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17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심해지자 “재검토가 아닌 보완”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한국전력의 나주혁신도시 이전은 사실상 물거품되는 상황이다. 한편이 민영화 대상에 들어있는데 민영화되면 이전의

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모아 혁신도시 축소 및 변경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거대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업 축소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세력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차제에 혁신도시 사업을 못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부터 혁신도시 사업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시켜야 하며 통합민주당 내에 '혁신도시 사업 축소 저지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

라당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비수도권 의장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 건설은 그 의미가 희석해서는 안되고 사업의 근간인 공기업 이전에” 조정이 있어도 안된다”며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4개 시·군·구청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이날 “혁신도시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백지화 등이 논의된다면 전국 지방단위의 강력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I 감염 의심 13곳 추가 통제

전남 온 한총리 “피해 농민 생계비 지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순창 오리농장에 사료를

공급했던 차량들이 전남지역 13개 오리농장에도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농장에 대해 전남도가 17일 이동제한조치를 취했다. 도는 또 도내 일부 지역의 정밀검사 결과가 이번 주말·휴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비상 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AI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AI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작업과 피해농가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이어 영암군을 방문해 “방역대책 강화와 피해 농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확산된 순창 농장에 오리 사료를 공급했던 4대의 트럭이 지난 3월 22일부터 15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전남 지역 13개 농장(나주·담양·영암·함평·구례·장흥)에 사료를 공급했다.

또 16일 나주시 세지면에서 1만1천 700마리를 키우는 오리농장에서 370

마리가 폐사하는 등 나주와 목포 등에서 2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따라 국립수의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전남지역 의심지역은 18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김제지역에 군병력 200명을 투입했으며, AI인플루엔자 상황 종료시까지 살처분 작업에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 세금 징수 유예(최장 9개월), 긴급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협을 통해 AI 방역권에 속한 닭·오리 등을 시가 구매하기로 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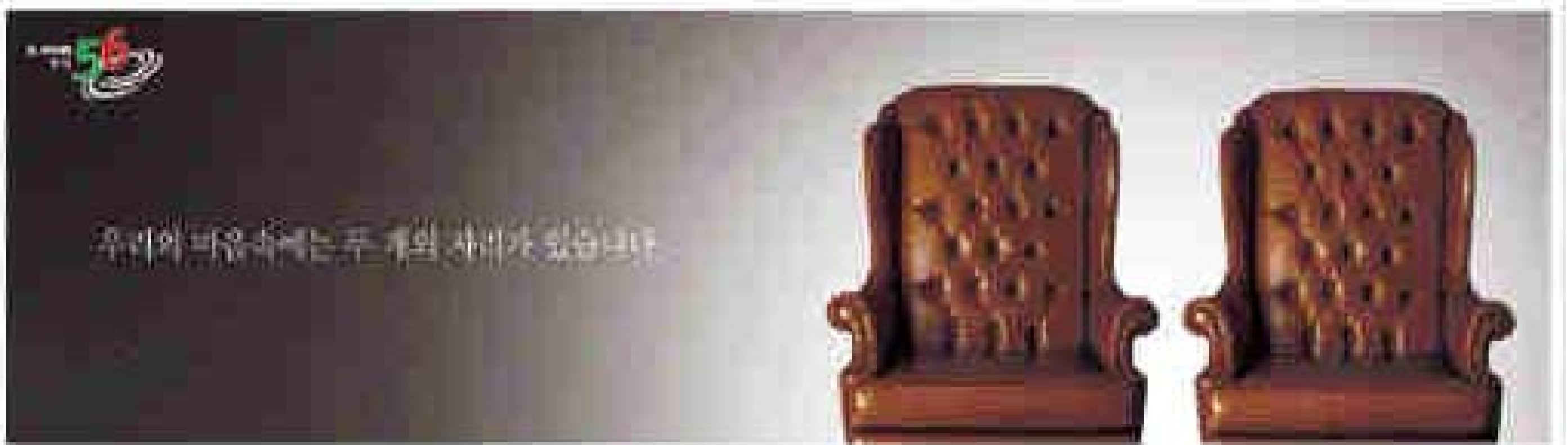
창사 56주년 특집호 발행

광주·전남 체세대 성장동력	5면	미리보는 2008 광주비엔날레	15면
광주·전남 뉴 파워 56인	6~7면	우주시대 - 나로우주센터	18~19면
광주일보와 함께한 56년	8면	F1 성공해야 J프로젝트 순항	22면
기업인들이 느끼는 '전북대'	13면	여수 엑스포 준비 이렇게	23면
연해주 통일 농장을 가다	14면	베이징 올림픽 D-112	30면

에스디엘
 www.esdl.co.kr

“에스디엘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10개 교육하는 기업가치를 창조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김 하 숙
 광주광역시 남구 출하동 254-1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가톨릭대학교**
 Tel: 062)334-0650 Fax: 333-4519



광주은행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창립 56년째 이어온 광주은행의 전통과 정성.
 창립 56년째 이어온 광주은행의 전통과 정성.
 창립 56년째 이어온 광주은행의 전통과 정성.

